

제언

우리의 신앙과 실명에 대해 존경하는 목회자신문 독자 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귀한 지면을 할애해 주신 목회자 신문사측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글은 예정통합 교단과의 오해로 인한 간격을 좁히는 차원에서 통합교단 제 77차 총회가 지방교회에 대해 결의하신 내용에 대한 해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인 진리항목들을 다루기에 앞서,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로 대표되는 (지방교회) 신앙의 특색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지방)교회는 (틀리머스 형제외의) <근본주의 신앙> 과 <생명의 체험을 강조하는 흐름>의 교집합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교회 성도들은 근본주의 5대 교리의 성경의 무오성,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죄송, 육신을 입은 부활, 육체적 재림(또는 기적의 안장)을 굳게 믿는다. 또한 이러한 신앙의 토대 위에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내주시는 생명으로 체험함(골1:27)을 추구한다. 따라서 일부 성경해석상 이견이나 용어표현상 이질적인 면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핵심진리(유다서 3절)에 관한 한 역사적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전통 위에서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지면의 제한 상 77차 총회 결의를 통해 통합교단이 지적한 각 항목들에 대해서 핵심 요점만 간략하게 해명을 드리고자 한다.

“역사적·성경적 그리스도인 전통따라”

지방교회, 바른 이해와 교제 희망



다. 위트니스 리가 이런 주석을 통해 다른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재차 양해를 구한다.

2) 기성교회의 목사와 예배를 부정한다는 지적 - 루터도 주장한 바 있는 <계급적인 의미의 성직자-평신도 제도>를 반대한다는 말이 본의 아니게 와전된 것 같다. 하나님의 양무리에게는 당연히 목자들이 필요하다. 지방교회측도 성도를 목양하는 풀타임 사역자들이 있다. 또한 성경적인 예배를 부인하지 않는다.

3)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는 지적 -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영원한 멸망이 아닌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기록이 성경에 있다(행2:40-41). 이처럼 <세상으로부터의 분별> 내지는 믿음의 외적인 간증으로서의 침례를 말한 것이 다소 오해가 된 것 같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침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4) 주님이름 부름이 유일한 성령충만 방법이라고 한다는 지적 - 사실이 아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요함을 체험한다고 성경은 말한다(롬10:12). 그러나 지방교회 성도 누구도 이것을 유일한 성령충만 방법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풀러신학교측 총장과 신학대학장이 지방교회 인도자들과 2년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검증 끝에, “이단이 아니고 역사적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지방교회를 바로 이해하게 되었다. 통합교단과도 더 많은 교제를 통해 동일한 이해에 이르게 되기를 기도한다.

지방교회 공동대표 이희득 서승본

1. 신론에 대하여

1) 신인합일주의를 가르친다는 지적 -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요15:5), ‘받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함이니라’(롬8:29)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요일3:2)라는 말씀을 믿는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와 똑같이 될 수는 없다. 사람인 우리는 어떤 경우든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통합측 지적처럼 일부 설명에 본의 아니게 ‘표현상’ 오해의 여지가 없지 않다.

2) 양태론을 가르친다는 지적 -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으시는 세 인격, 한영>이 지방교회 삼위일체이다. 이에 대해 통합측 토론자는 <세 인격, 세 영들>을 기준삼아 양태론이라고 함으로 양측에 이견이 생겼다. ‘세 인격이 하나로 발전

된 것’이란 표현은 출처로 제시된 책 110쪽에 발견되지 않는다. 소위 ‘수박비유’는 세 위격이 동시존재하심을 전제로 한 설명임으로 양태론이 아니다. 그러나 읽기에 따라 오해의 여지는 있다.

2. 기독교론에 대하여

예수님의 인성에 변화가 있다고 한다는 지적 -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다. 그러나 그 육신은 부활을 기점으로 <씩을 몸>에서 <씩지 않을 몸>-영광의 몸(빌3:21)-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한다(고전15:42, 44). 그러나 이것을 인성의 변질로 보는 신학자는 없다. 위트니스 리는 그것을 설명한 것이다.

3. 인간론에 대하여

1) 삼분설을 가르친다는 지적 - 지방교회측이 삼분설을 지지하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삼분설, 이분설은 상대적 관점일 뿐 이단성 여부를 가릴 진리항목은 아니라고 본다.

2) 영이 타락하지 않았으며 전인적 타락을 부인한다는 지적 - 이 점은 통합교단 토론자가 토론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고백함으로써 잘 해결되었다(교회와 신앙, 97년 8월호 164쪽 참조). 지방교회측은 전인적 타락을 굳게 믿는다.

4. 교회론에 대하여

1) 기독교를 바벨론 음녀라고 한다는 지적 - 위트니스 리는 계시록 주석 과정에서 ‘큰 바벨론’(계17:5)을 ‘로마천주교’로 이해했다. 이것은 근본주의 성경교사들 대다수의 관점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계시록강해는 난해한 문제임으로 얼마든지 다른 해석적 관점이 가능하